

MLB 중계를 보다 보면 “ET 기준 몇 시”라는 말을 자주 만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멈춥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언제부터 보면 되는지, 날짜가 바뀌는지, 그리고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표기한 시간이 왜 다른 것처럼 보이는지요.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ET를 KST로 정확히 변환하는 감각만 잡으면, mlb중계 시간은 거의 자동으로 손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ET 기준 MLB중계 시간”을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실전처럼 바꾸는 법을 정리해볼게요. KBO까지 같이 보는 분들, 특히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한 페이지에 두 리그를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구성해볼게요.

먼저, 시간대부터 딱 정리하자: ET와 KST

한국은 KST(UTC+9)이고, ET는 미국 동부시간(주로 일정 안내에서 ET라고 부르는 그 시간대)으로 많이 안내됩니다. 한국 시간은 ET보다 **14시간 빠릅니다**. 이 한 줄이 핵심이에요.

- 한국(KST) = ET + 14시간
- 예를 들어 ET 18:00이면 한국은 다음 날 08:00이 됩니다(18:00 + 14:00 = 32:00, 즉 날짜가 하루 넘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시냐”뿐 아니라 “며칠인지”예요. MLB는 경기 시작 시간이 저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ET 기준으로는 같은 날 저녁이어도 한국에서는 다음 날 아침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변환 결과에서 날짜가 바뀌는지 꼭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ET 시각을 한국으로 바꾸는 손맛: 계산을 빠르게

계산 자체는 암산으로도 됩니다. 다만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야구중계 사이트 추천](#) 자주 보는 포맷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패턴을 기준으로 계산 감각을 만들어두면 실수가 확 줄어요.

예를 들어 ET 기준 시작 시간이 다음처럼 나온다고 해볼게요.

- ET 10:00 → KST 24:00 → 보통 한국은 “다음 날 00:00”
- ET 13:30 → KST 03:30(다음 날 새벽)
- ET 18:00 → KST 08:00(다음 날 아침)
- ET 22:30 → KST 12:30(다음 날 오후)

이런 예시는 변환 규칙 자체에서 바로 나옵니다. “ET + 14시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타임 표시가 통째로 틀어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날짜 이동입니다. 한국은 14시간 빠르니까, ET 기준 오후 경기일 때 한국은 대부분 다음 날이 됩니다. 반대로 ET가 오전이면 한국은 같은 날 늦은 오후나 저녁이 되기도 하고요.

날짜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방식, 이게 제일 편해요

시간 변환을 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요일이 맞나?”가 바로 안 잡히면, 그 변환은 반쪽짜리예요. 한국 시청자는 특히 요일 감각이 중요한 편이라서, 저는 변환할 때 이런 순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ET의 “시각”을 그대로 보고, 그 다음 “14시간을 더한 결과가 24:00을 넘는지”를 빠르게 체크해요. 넘으면 한국은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안 넘으면 같은 날입니다.

가령 ET 19:30이면 $19:30 + 14:00 = 33:30$ 이라서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경계만 먼저 감 잡으면, “왜 KST 표기가 다른 것 같지?”라는 멘탈 소모가 확 줄어요.

KBO도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시작 시간 변동까지 같이 잡아야 함

여기서 MLB만 보면 끝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야구중계를 보면서 KBO도 같이 챙기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KBO는 공식 공지에 따라 시작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KBO의 기본 경기 시작 시간은 정규 편성 기준으로 평일 18:30, 주말이나 공휴일 14:00 또는 17:00 등으로 운영된다고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시작 시간은 공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KBO는 노동절 경기를 18:30에서 17:00으로 변경한 바 있고, 폭염 등 기상 사유로도 개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KBO는 “원래 시간”을 외워도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MLB도 ET 기준 표기만 믿고 끝내기 보다는, 경기 당일에 공식 일정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공식 일정 확인이 왜 중요한가: 같은 리그라도 한 페이지에서 정리됨

한국에서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시작 시간, 선발투수, 중계 채널, 그리고 언제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돼서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결국 마지막 검증은 공식 일정으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정은 바뀔 수 있고, 특히 변환은 날짜를 타고 들어지기 쉬운데, 공식 일정은 그걸 정면에서 잡아주거든요.

검증 포인트를 기준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와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KBO는 일별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 시간, 중계 TV, 구장,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빠르게 훑은 뒤, “최종 시청 시작 시간”만 공식 일정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흐름이 현실적으로 제일 편합니다.

“ET 기준”이 적혀 있을 때, 시청 시작 타이밍을 어떻게 잡나

사람마다 시청 습관이 달라요. 어떤 분은 경기 시작 10분 전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선발 발표 끝나고 들어가고, 어떤 분은 아예 캐스터 도입부부터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ET 변환을 할 때는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 “경기 시작 시각”과 “방송 시작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 일정에서 보이는 건 대개 “경기 시작” 기준인 경우가 많고, 실제 중계 방송은 그보다 앞서서 진행될 때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방송사 편성이나 안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는 단정 대신 실전 팁으로만 말할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ET 변환으로 경기 시작 시각을 한국 시간으로 딱 찍은 다음, 야구중계사이트나 방송 안내에서 “방송 시작 표시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10~20분 정도 당겨서” 보려고 해요. 반대로 그런 표시가 애매하면, 그냥 경기 시작 기준으로 타이머를 맞추는 편이고요. 이건 개인 취향이기도 해서, 핵심은 “변환해서 나온 경기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계산 예시로 감각 잡기: “이번 경기는 몇 시야?”를 바로 답하기

자, 실제로 물어보는 형태 그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ET 기준 MLB중계 시간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1) ET 16:00 시작

- KST는 $16:00 + 14:00 = 30:00$
- 한국에서는 다음 날 06:00이에요.

2) ET 21:15 시작

- KST는 $21:15 + 14:00 = 35:15$
- 한국에서는 다음 날 11:15입니다.

3) ET 12:30 시작

- KST는 12:30 + 14:00 = 26:30
- 한국에서는 다음 날 02:30이에요.

이렇게 세 번만 해도 감이 와요. 특히 18:00 이후 시간대는 한국에서 거의 항상 “다음 날”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론 ET가 어느 날짜인지도 같이 봐야 하지만, 요령은 같습니다.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이 어긋나 보일 때, 흔한 원인들

변환을 했는데도 “내가 본 시간표랑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보통 이유가 몇 가지로 모입니다.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억측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자주 부딪히는 경우만 정리해볼게요.

다음은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입니다.

1. ET를 KST로 변환할 때 날짜 경계를 놓친 경우
2. 사이트가 경기 “시작”이 아니라 “방송 시작”을 기준으로 표기한 경우
3. 같은 경기인데도 리마인드 표기가 다른 페이지에서 따로 관리되는 경우
4. 날짜 표시를 한국식 날짜로 착각해서, 변환 결과의 요일을 잘못 매칭한 경우
5.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빠르게 스크롤하다가 다른 경기의 시간을 눌러버린 경우

이 중 1과 4가 특히 많습니다. 14시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결국 해결은 “날짜부터 확인”이에요.

KBO와 MLB를 같이 보려면, ‘하루 안에서’ 정리하는 습관이 편해요

한국에서 KBO랑 MLB를 동시에 챙기는 분들은 보통 이런 형태로 일정을 보실 거예요. “오늘 밤 KBO 보고, 내일 아침 MLB 본다” 같은 식으로요. 이럴 때는 리그별 시작 시간 구조가 조금 달라서 체감이 큼니다.

KBO는 정규 편성 기준으로 평일 18:30, 주말이나 공휴일 14:00 또는 17:00 등으로 운영되며, 실제로는 공지에 따라 17:00처럼 조정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MLB는 162경기 체제로 장기 시즌이고, 특히 ET 기준 안내가 많아 한국에서는 시간대가 더 크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같이 보려면 “변환한 MLB 시간 + KBO의 공지 시작 시간”을 한 화면에서 합쳐 보는 게 편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영 방식은 이거예요. 먼저 하루를 기준으로 “내가 볼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를 잡고, 그 다음 공식 일정으로 최종 확인을 거치는 겁니다. 야구중계사이트는 보통 빠르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결정 직전에는 공식 일정로 확정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시즌 스케일도 알아두면, 시간표 볼 때 덜 헤매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MLB는 왜 일정이 너무 많아?” “KBO는 금방 끝날 것 같고.” 이걸 감각인데, 사실 숫자도 있어요.

KBO는 10개 구단 체제에서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편성됩니다. MLB는 30개 구단의 장기 시즌이고, 162경기 체제로 운영됩니다. 즉 MLB는 경기 수 자체가 더 촘촘하고, 그만큼 일정 변동이나 시청 안내가 더 자주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왜 이번 주에 방송 안내가 계속 보이냐” 같은 당황이 줄어듭니다. 결국 해결은 같은 거예요. ET 변환 규칙을 손에 익히고, 중요한 건 경기 당일에 공식 일정으로 확인한다.

정확도를 올리는 짧은 체크 루틴 (진짜 도움 되는 버전)

여기까지 읽었으면 감각은 잡혔을 거예요. 그래도 막상 경기 당일이 오면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짧게, 체크만 합니다. 리스트로 줄이긴 할게요.

1) ET 표기인지 확인하기

2) KST는 ET보다 14시간 빠르다는 규칙으로 바로 변환하기 3) 변환 결과가 24:00을 넘는지 보고 다음 날 여부 확인하기 4) KBO는 시작 시간이 공지로 조정될 수 있으니 공식 일정 한 번 더 보기



5) 야구중계사이트에서는 중계 채널 안내도 같이 확인하되, 최종 시작 시간은 공식 일정으로 확정하기

이 5개만 지켜도 “시간 틀어졌다” 같은 사고가 확 줄어요. 특히 날짜 경계에서 손해 보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ET 기준 MLB중계 시간은 결국 “ET가 몇 시냐”만 알면 끝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듯이 질문을 다시 만들어볼게요.

- ET가 적힌 표기에서 “시각”이 정확히 뭐야? (예: 18:00, 21:15 같은 형태)
- 그 ET가 해당 날짜 기준으로 맞아? (한국에서는 다음 날이 될 수 있으니)
- 방송을 실제로 볼 타이밍은 경기 시작 기준이야, 방송 시작 기준이야?

이 세 가지만 정리되면, 한국 시청 시간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채널 안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정보를 붙여서 최종 시청 알람까지 세팅하면 끝이에요.

원하면, 당신이 자주 보는 시간 표기 형태를 [야구중계](#) 알려줘요. 예를 들면 “ET 19:05 이런 식으로 나온다”처럼요. 그러면 그 포맷 기준으로 한국 시간 변환을 더 빠르게 하는 방식도 같이 맞춰줄게요.